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재선 도전 김철주 독주체제 예고

무안군수

6·4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선거는 현역 군수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철주 후보와 새누리당 오원욱 후보, 무소속 최길권 후보의 3자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무안군수 선거는 신도심인 전남도청 소재지 남악의 민심이 판세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안군 인구는 총 7만8530여명인데 이 가운데 남악 인구는 2만4000명이 넘는다. 특히 이곳은 타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소지역주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쟁점으로는 무안기업도시 건설 무산 이후 지역경제 회생 대책과 수년째 제자리결음을 하고 있는 남악개발이익금 분배, 무안반도 통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 후보의 재선을 다른 두 후보가 저지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계 김호산 우리농산물지키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본선에 올랐다. 약사 출신으로 7·8대 전남도의회를 역임하고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행정·의정 경험활동을 해왔다. 이어 지난 2012년 서삼석 당시 군수의 총선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2년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 기업도시 무산으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잘 다독이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국비 확보를 통해 군 발전을 앞당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년은 무안의 장기 발전을 위한 초석을 깔고

■ 무안군수 후보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오원욱(45)	김철주(56)	최길권(28)
경력	·목포국제기독교대학교 기획실장	·무안군수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주요 공약	·셋째양육수당100만원지급 ·목포대의대 2년내 유치 ·무안반도 통합	·해양관광일주도로조성 ·국제항공산업 복합지구조성 ·양파한우융복합특구단지 추진	·실현가능한 공약 준비중

타지역 출신 많은 남악 민심이 관건

기업도시 건설 무산·지역경제 활성화 쟁점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 교육환경 개선으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무안, 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찾아오는 무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특별법'을 통한 무안시 승격을 꿈꾸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 초대 무안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오원욱은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목포국제기독교대학교 기획실장과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8년 무소속으로 목포시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 2006년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전남도의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2010년 무소속으로 목포시

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좌절을 맛보고 이제 네 번째 도전이다.

그는 "무안을 전남 제일의 도시로, 기린진 옥도로 만들겠다"며 ▲무안반도 통합 ▲셋째 아이 양육수당 1000만원 지급 ▲목포대의대 2년 내 유치 ▲65세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및 이마용·목욕권 배부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설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최 후보는 한국농수산대학 화훼학과를 졸업한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14년간 전반적인 정부 정책 바로잡기와 봉사하는 행정기관의 공정 집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

DJ고향서 무소속 선전 여부 관심

신안군수

신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후보를 제치고 이번이 당선됐다.

지난 2006년 고길호, 같은 해 재보선 박우량, 2010년 박우량 등 세 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무소속의 선전이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우량 현 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 후 경선에서 승리, 3선 도전에 나섰다. 이에 무소속으로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국장,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한 차례 파란이 일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등록 첫날인 지난 15일 밤 "가족이 병마로 인해 위독하게 돼 가장으로 직접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면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안 된 16일 오전 "당직자와 지지자의 만류와 군민과 약속 때문"이라며 불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박 후보는 "지난 8년간 군정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왔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신안군민의 더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여객선 준공영제 등 선교복 혁신 ▲천일염 명품화 등을 통한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1500명 달성 ▲65세 이상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승규 후보는 경선에 도전했다가 지난 14일 "경선 심사과정에서 새정치에 부합

■ 신안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박우량(58)	남상창(63)	김승규(58)	고길호(69)
경력	·신안군수	·전 진도부군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신안군수
주요 공약	·임기내 부채 0원 ·여객선 준공영제 ·소득 1억원 1500명 달성	·농업공동운영 ·신안진도관광대교건설 ·전천후여객선 운항	·안해선굴 6차산업 활용 ·민원공개법정 개설 ·보통학력책임제 운영	·군청시업 유관기관 이전 ·상수도시설 확충 ·송공연안항 개발

2006년 이후 무소속 3차례 잇따라 당선

새정치 공천 박우량 군수 3선 강력 도전

하지 못한 구태정치에 큰 실망을 해 탈당하게 됐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하의면·압해면·목포시 근무를 거쳐 전남지사 경제정책보좌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일하는 등 모든 행정 단계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학력책임제 운영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 ▲압해산 굴 활용한 6차산업 육성 ▲1조5000억원 규모의 대대위 복합관광리조트 개발 ▲선심성사업 방지 위한 민원공개법정 개설 등을 약속했다.

남 후보도 "전남 5개 정밀진단 지역 현역 단체장의 후보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개혁공천을 이행하라"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승규 후보는 경선에 도전했다가 지난 14일 "경선 심사과정에서 새정치에 부합

상향 후보는 "군수로 당선되면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농업 공동운영 ▲11km 신안진도관광대교 건설 등 국도 77호선 확대 ▲전천후 여객선 운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길호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3기 군수를 지내고 4기 군수까지 당선된 경험이 있어 조직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는 특권층과 소외계층의 싸움"이라며 "비정상으로 얼룩진 8년의 군정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또 ▲민선 3기 때 군청사 이전과 함께 기획했던 선관위·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이전 재추진 ▲새천년대교 주변 수산물류허브 및 해양음식타운으로 활용 등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선거구당 3명씩 출마...40대·50대의 대결

도의원

두 명을 선출하는 무안군의 전남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3명씩 출마했다. 제1선거구(무안읍·현경·망운·운남·해례면)에는 이승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대변인, 양영복 전남도의원, 배용수 전 전남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에 들어갔다. 15대 국회 때부터 이윤석 의원을 보좌해 왔으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이 후보는 젊은

과 패기를 앞세워 무안과 전남도의회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제2선거구(일로·삼향읍·동탄·청계면)에서는 정영덕 전남도의회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재출마한 가운데 무소속으로 윤성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무안지회 사무국장, 노동당 후보로 양현주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부지회장이 각각 도전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

■ 무안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승훈 (48·민·새정치 전남도당 대변)
	양영복 (56·무·전남도의원)
	배용수 (56·무·전 전남도청 공무원)
제2선거구	정영덕 (50·민·전남도의원)
	양현주 (46·무·노동당 서남당협 부위원장)
	윤성근 (43·무·전 한국병원 총무 과장)

*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1선거구 후보 4명 난립...2선거구 양자 대결

도의원

신안군 전남도의원 선거의 경우 2개 선거구에서 6명이 나섰다.

1선거구(지도·중도·임자·자은·압태·압해)에서는 임흥빈 도의원이 군수 출마를 접고 도의원으로 방향을 선회,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았다.

무소속으로는 김일중 전 도의원, 김중삼 전 신안군의원, 전충인 농축산업인 등 3명이 나섰다.

■ 신안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흥빈 (53·민·전남도의원)
	김중삼 (63·무·전 신안군의원)
	전충인 (62·무·농축산업인)
	김일중 (63·무·전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정연선 (60·민·재 목포 신안군 향우회장)
	황두남 (52·무·전 신안군의원)

*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대한민국 최저가 LTE 기본료

LTE29 요금제 출시

휴대폰은 최신 LTE 폰으로! 통신비는 국내 최저가 LTE 요금제로!

추천요금제

기본료 (VAT포함)
29,000원
(31,900원)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약정할인
60분	200건	500MB	6,000원 (6,600원)

최신단말기

Samsung GALAXY S5 LG G Pro2 VEGA 시크릿UP



삼성 갤럭시 S5 LG G Pro2 팬택 베가시크릿UP

100% 가입 선물

티빙 실시간 TV 무제한 1년 이용권 100% 증정 (~2014.12.31 이전 가입고객 대상)

*"실시간 TV 무제한 이용권"은 모바일+PC+태블릿에서 180개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 가입문의 1855-4949